



지난 10일 ㈜두산 산업차량 인천공장에서 열린 '종합 물류서비스 선두주자 도약' 선포식에서 동현수(좌) 두산 부회장(왼쪽 일곱째), 광상철 산업차량BG장(동 부회장의 오른쪽), 김환성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대표(동 부회장의 왼쪽)를 비롯한 임직원과 고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게차 제조 넘어 물류 자동화까지 두산, 종합 물류서비스 선포

㈜두산이 11일 지게차 제조를 넘어 렌탈·중고거래 등 서비스와 물류 자동화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종합 물류서비스 선두주자로 도약하겠다고 선포했다. (좌)두산은 10일 인천공장에서 동현수(좌) 두산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고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했다. 종합 물류서비스 사업은 지게차 제조, 다운스트림(렌탈, 중고거래, 정비 등) 서비스, 물류 자동화 솔루션으로 구성된다. 근간은 (좌)두산이 국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게차 '제조' 영역이

다. (좌)두산은 이날 전동식 지게차, 팔레트 트럭, 리치 트럭, 스택어 등 창고 물류 장비 전제품 18종을 전시했다. 광상철 (좌)두산 산업차량BG장은 "2025년까지 매출을 2조원대로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다운스트림 서비스는 작년에 설립한 두산로지피아(Doosan Logipia)가 주축이다. 5월 출범한 물류 시스템 통합사업자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은 물류 전 과정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한화시스템, 하늘 나는 택시사업 진출

美 K4에어로노틱스에 295억 투자
일정지분 확보... PAC 개발 동참



장시권 한화시스템 대표이사(왼쪽)와 벤처너 K4 에어로노틱스 CEO가 한화시스템 PAV 투자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이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한화시스템은 11일 최근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에어택시 시장 진입을 위해 미국 'K4 에어로노틱스'에 2500만 달러(약 295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K4 에어로노틱스'는 고효율·저소음의 개인형 항공기(PAV) 개발을 위한 특허와 전기 추진식 PAV 기술 라이선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이번 투자를 통해 한화시스템은 'K4 에어로노틱스'의 일정 지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시장을 공략할 PAC 개발에 동참하게 된다. 또 앞으로 점차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사업 발굴 차원에서 PAV 분야 진출을 모색해온 한화시스템은 항공전자, 시스템통합, 사이버보안 기술 등을 활용해 개발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항공전자 부품 등 새로운 분야로 사업 기회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양성운 기자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PAV는 항공전자, ICT(정보통신기술) 기술력을 활용해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이라며 "글로벌 투자와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 건은 미국 정부의 인허가 등 통상적인 선결 조건을 전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아시아나클럽 안내사항 실시간 제공

아시아나항공 '알림톡 서비스'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클럽 이용 안내 사항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했다. 1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알림톡'은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카카오톡 알림 기능으로, 아시아나항공은 그간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정보 전달을 해오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에게 회원 정보, 제

도 등 다양한 정보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에게 ▲승급·자격유지 등 '회원 등급 변동 안내' ▲비항공 서비스 마일리지 구매 시 '공제·잔여 마일리지 안내' ▲마일리지 적립·소진 실적이 없는 회원 대상 '휴면계정 전환 안내' 등 아시아나클럽 회원 정보 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고객 편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 전기차 충전기 설치

SK '친환경 에너지 거점' 된다

SK에너지, 에너지즈 등과 MOU
'그린벨런스 2030' 전략 추진

직영주유소 15곳에 태양광 발전
이달 11곳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SK에너지가 SK주유소와 내트럭하우스 등 석유 유통 물류 거점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업에 나선다.

11일 SK에너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조경목 SK에너지 사장과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 교통솔루션 업체 에스트라픽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SK주유소와 내트럭하우스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기차 충전기를 도입해 '그린벨런스 2030'을 추진한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그린벨런스 2030은 SK이노베이션이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2030년까지 환경 분야 부정적 효과를 상쇄한다는 전략을 말한다.

SK에너지는 먼저 수도권 3곳을 포함한 15개 직영주유소를 1차 설치 대상으로 하고 주유소 캐노피 상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 오는 10월부터 단계



1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왼쪽부터)과 SK에너지 조경목 사장, 에스트라픽 문찬중 대표가 '친환경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적으로 상업 가능하다.

부산 신항 내트럭하우스에서는 9월부터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고 올해 안에 2개 휴게소에 발전 설비를 추가로 착공할 예정이다.

15개 주유소와 부산 신항 발전소가 가동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비교해 연간 온실가스 820t을 감축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또 SK에너지는 지난 4월부터 SK양평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전국 11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고 내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유소에는 100kW(킬로와트)급 초급속 충전기가 설치돼 60kWh(킬로와

트시) 전기를 30여분에 완충할 수 있게 된다.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내트럭하우스에도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경목 SK에너지 사장은 "대표적인 물류 거점인 주유소와 내트럭하우스에 태양광 발전과 전기차 충전소 기능을 접목시킴으로써 친환경 거점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회도 확보하게 됐다"며 "회사가 가진 자산을 공유 인프라로 활용하고 그린벨런스 2030 전략을 적극 추진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T, 철도 통신 속도 10배 높인다

철도공과 DWDM 사업 구축계약
전국 기간망에 ROTN기술 적용

SK텔레콤이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10배 빠른 철도 통신을 만든다.

SK텔레콤은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균장산단 입입철도 외 네 개 사업 고밀도파장분할다중화장치 구매설치' 사업 구축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우리넷 등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이번에 수주한 남부 고밀도파장 분할 다중화장치(DWDM)는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수도권 이외 남

부지역 철도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총 계약 금액은 약 68억원 규모다.

DWDM 전송 장비는 빛의 파장에 신호를 실어 전송하는 장비다. 철도통합 무선망인 LTE-R, 열차간 통신인 KTCS부터 보안을 위한 CCTV와 열차표예매 등 전산으로 이뤄지는 통신까지 모두 DWDM망을 통해 이뤄져 철도 통신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 인프라로 꼽힌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ROTN장비는 미국 시에나사의 최신 기술장비다. 회

선단위로 다양한 우회경로를 통해 통신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이번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에 따른 '철도 광전송망 구축계획'의 일환이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수주한 '원주~강릉 파장분할다중화장치 구매설치'에 이어 서울, 대전, 부산 등에 대용량 기간망(남부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SK텔레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국 DWDM 망 구축 사업자로서 전국 주요 역사에 도입해 망을 확장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삼성중, 파나마서 1467억 규모 원유운반선 2척 수주

SCR 등으로 친환경 규제 적합
독자개발 스마트시스템도 탑재

삼성중공업이 파나마 지역 선사로부터 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 2척을 1467억원에 수주했다고 1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해당 선박은 2021년 3월에 인도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및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TS) 등을 탑재해 친환경 규제에 적합하며 선주사의 운항 조건에 최적화된 선형 및 추진기 등 연



삼성중공업 원유운반선 /삼성중공업

감 가능한 최적 운항(항로) 계획 수립 ▲실시간 장비상태 감시 및 고장 진단 ▲육상 원격관제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선박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총 16척, 33억 달러의 수주를 기록 중이며 연간목표치 78억 달러의 42%를 달성했다. 선종별로는 LNG운반선 10척, 원유운반선 4척, 특수선 1척 및 FPSO 1기를 수주하는 등 다양한 선종으로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 /정연우기자 ywj964@